

◎ 이상훈, 『나당전쟁연구』(서울: 주류성, 2013)

1. 책 선정의 변

(1) 발제자의 문제의식

- 7세기 후반 동아시아 구조 변동
- 전쟁과 고대국가 형성
- 삼국전쟁·나당전쟁기 신라의 동맹 정책: ① 동맹 형성-유지-와해의 요인 ② 전후 질서회복의 제도이자 전략적 균형점으로서의 조공책봉, 종변관계 ③ 전쟁·내란·회맹·변속·기미부주(통일)

(2) 신라 주제선정의 계기

- <삼국사기 제 5권, 신라본기 제5, 선덕왕 12년(643)조 9월> 의 한 대목
가을 9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어 말했다.

“고구려와 백제가 저희 나라를 침략해서 여러분 수십 개의 성을 습격당했사온데, 두 나라가 구사를 연합하여 기어코 그것을 빼앗을 것을 기약하고 이번 9월로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나라의 사직은 틀림없이 보전되지 못할 것이므로, 삼가 사신을 보내어 대국에 말씀을 드려 일부 군사를 빌려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황제는 말했다.

“우리가 변방의 군사를 조금 보내어 거란과 말갈을 거느리고 바로 요동으로 들어가면 그대 나라는 절로 풀려 그대들은 1년 동안 포위를 늦출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군사가 없음을 알면, 도리어 침략과 모욕을 마음대로 하여 네 나라가 모두 소란할 것이다. 그대에겐 미안 하지만 이것이 첫째의 계책이 되겠고, 우리가 또한 그대에게 수천의 불은 옷과 수천의 붉은 깃발을 출 수 있으니, 두 나라 군사가 이르면 세워서 이를 벌여두면, 그들이 보고 우리 군사로 생각하고 반드시 모두 달아날 것이다. 이것이 둘째의 계책이 되겠으나, 백제국은 바다가 혐난함을 믿고서 병기를 수선하지 아니하고 남녀가 뒤섞여서 서로 놀이만 하니 우리 수십, 수백의 배에 군사를 싣고 가만히 바다를 건너 곧 그 땅을 습격하려고 하는데, 그대 나라는 부인을 임금으로 삼아 이웃 나라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으니(爾國以婦人爲主鄰國輕侮), 이는 임금을 잃고 도척을 맞아들인 격이므로 어느 해나 편안할 리가 없겠기에, 우리가 한 사람의 종친을 보내어 그대 나라의 임금으로 삼되, 자신이 혼자서 갈 수는 없을 것이니 마땅히 군사를 보내어 보호해야 할 것이며, 그대 나라가 편안해지기를 기다려 그대들에게 맡겨서 스스로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셋째 계책이다. 그대는 어느것을 따르겠는가?”
- 질문: 왜 신라가 7세기 이후 한반도 유일 국가로 생존할 수 있었는가? 중국과 접경하지 않고(cf.고구려), 정복되지 않을 만큼의 저항력은 가지되(cf.백제), 적정선에서 영토의 타협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 여기에 ‘연합형성’의 외교술?

2. 책의 내용

(1) 서론

- 대상시기: 나당전쟁기(669~676)
- 사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2) 나당전쟁 연구사

- 신라승리론(국내): 삼국통일전쟁론(통설) vs. 백제통합전쟁론(대동강 이남만 영유, 요동 진출 못했기 때문)
- 당의 한반도방기론(池內宏, 陳寅恪, 高明士): 토번(티베트)의 발호로 당의 서북지역이 위급해지자 동북지역을 경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철수
- 철충론(2000년대)
 - 서영교: 한반도에서 동아시아로 시야 확대, 나당전쟁의 전개를 서역 전황과 연계 해석. 669년 토번이 천산남로를 굽습하자 670년 4월 설인귀 지휘 당 주력군이 서역으로 투입→670년 3월 신라군이 압록강 이북으로 진출→675년 9월 매소성에 주둔하던 말갈족 출신 아근행이 말갈병 이끌고 서역으로 이동, 676년 나당전쟁 종결. '약소국' 신라는 서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전쟁 개시, 종전은 매소성 전투의 승리 결과가 아니라 국제적 상황의 부산물
 - 拜根興의 종번론: 657년 매소성 전투는 서북변경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당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 전후 신라가 당에 다시 臣屬, 宗藩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승패 무의미
- 필자 이상훈
- 토번의 발호라는 외부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나당전쟁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

(3) 나당전쟁의 원인

- 3가지: 당의 영토분할약정 위배, 백제부흥군 진압에 대한 무보상, 취리상 회맹후 당에 의한 백제의 재흥 문제 (이호영)
- <답설인귀서>: 671년 당장 설인귀가 신라 문무왕에게 보낸 <설인귀서>에 대한 답신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
 - 648년 합의된 영토분할 약정을 당이 위반
 - 백제평정 및 백제부흥군 진압에는 신라의 공로가 절대적
 - 백제주둔 당군에게 지속적으로 군수품 제공
 - 웅진도독 부여릉과 회맹시킨 것은 부당한 처사임
 - 고구려평정도 신라의 공로가 커웠음
 - 고구려평정 후 비열흘의 안동도호부 귀속은 부당함
- 650년대 이후 당의 한반도 지배 의도 vs. 신라의 영토확보 의지 상충
 - 웅진도독부(백제고지)와 안동도호부(고구려고지)의 설치
 - 계림도독부(신라)의 설치시도와 계림주대도독(신라왕)의 임명, 부여릉의 웅진도독 임명과 취리산 회맹

(4) 나당전쟁의 개전

- 오골성 전투와 신라의 요동 선제공격: 670년 3월 신라 설오유와 고구려 부흥세력 고연무의 2만 연합군이 압록강 건너 오골성에서 당군과 충돌 (p.94 그림3. 설오유·고연무의 요동 진격 추정로)
- 설오유와 고연무는 각각 정병 1만. 설오유군은 고구려 포로들로 추정
- 신라는 670년 3월 설오유 부대를 요동으로 진출시킨 후, 7월 백제고지 장악
- 671년 백제고지 중심부에 소부리주 설치

(5) 나당전쟁의 확대와 당군의 전력

- 670년 4월 당군 4만 편성(고간이 이끄는 1만의 漢兵, 이근행 3만의 藩兵)(삼국사기), 671년 7월 요동 안시성 고구려 부흥세력 진압, 671년 9월 평양 도착
- 672년 8월 석문전투, 신라의 패배와 방어전략(축성, 장기전.소모전)으로의 전환
 - 석문전투 이후 신라·고구려부흥세력은 당과 예성강, 임진강, 한강 유역에서 치열한 공방전
- 671년부터 시작된 당군의 한반도 진격은 673년을 고비로 일단락, 674년 소강기, 675년 매소성 전투와 676년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물리남
- 당군의 구성과 규모
 - 한병과 번병(거란, 말갈) 연합 형태, 최소 10만 최대 20만
 - 대규모 行軍의 충원=당대 府兵制의 府兵(총병력수 50만)+兵募+藩兵

(6) 신라 수군의 활동과 제해권 장악

- <삼국사기> 671년 10월조, 답설인귀서, <삼국유사> 670-671년조 문두루 비법 시행 등 당의 해상 공격 시사
- 671년 6월 당군이 신라와 석성전투
 - 670년 7월 신라가 백제고지 전면공격, 백제 82개성 점령→옹진도독부 당에 구원군 요청(삼국사기)→당군은 기벌포를 통해 백제 내지로 진입, 석성전투
 - 671년 당군 구성: ① 670년 3-4월 오골성 전투를 수행한 말갈부대의 백제이동 (671년 백제 설구성 공격) ② 670년 4월 고간.이근행에 의해 편성된 4만 병력 ③ 671년 6월 도착한 당의 옹진도독부 구원군
 - 671년 11월 唐使 곽무종 선단 47척 도일: 당과 신라는 후방 안전 위해 일본과 유화책. 백제 독던 일본군 포로 송환설. 당군-백제유민-일본 유학승, 유학생, 견당사관계자 승선. 672년 5월 곽무종이 일본으로부터 대량의 군사물자 제공받고 일본 떠남

(7) 신라의 승전과 당군의 철수

- 당의 군사전략 변화시기: 당고종 의봉년간(676-679) 당과 주변 민족, 특히 토번에 대한 역량 변화가 발생하면서 수세전략으로
 - 669년 토번의 서역로 공격
 - 670년 4월 서역 4진을 토번에게 점령당한 당의 서역 재탈환 시도: 안동도호로 있던 설인귀를 불러들여 나사도행군 편성
 - 673-675년 서역로를 재탈환한 뒤, 675년 유인궤의 신라 원정군 편성
 - 676년 윤3월 토번의 당 내지 침입(당의 감목장 상실, 교통로 단절, 군사력 약화), 이로 인해 당의 군사전략 대전환
 - 신라 전선의 이근행을 토번 전선으로 이동시키고, 대규모 병모 실시, 678년 신라 재원정 계획 취소
 - 매소성전투와 신라의 방어성공
 - <삼국사기>에는 매소성에 당군 20만 주둔, 신라가 쫓아버리고 전마 3만여필 획득만 기록
 - 매소성전투가 발생한 675년은 당의 군사전략이 전환되기 이전
 - 공세를 지속하던 당군이 철수를 하게 된 주원인은 신라 수군에 의한 보급차단(필자)